

박지혜 개인전에 부처

김인선

박지혜 작가의 영상 작품 <그곳에 아무도 없다2019>를 구현하기 위하여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는 검은 벽면이 세워졌다. 벽면의 반투명한 매쉬 천을 통하여 관객은 원래 이 전시 공간에서는 쉽게 접근했었을 위치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상을 향하여 굳이 벽과 벽 사이를 통해 반 바퀴 돌아 검은 구조물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화면 속에 등장하는 하수처리장의 복잡한 공간들의 구조중 하나를 체험하게 하는 장치이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지박령처럼 관객들도 특정 공간의 틈새를 돌아서 영상 속 화면을 주시하기 위한 입구를 찾아야 한다. 화면 속에는 공간의 벽면, 바닥면 주위를 흐르는 물과 건물 안으로 스며드는 빛과 그림자 등 촉각을 일깨우는 시각적 매개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화면에 입혀진 압도적인 사운드가 함께 한다. 공간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시선과 함께 내내 들려오는 음산한 소리는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이후 이는 곧 남녀의 왈츠 장면과 함께 음악소리로 변하고 다시 화면은 영상의 소재가 되는 건물 공간 외부에 위치한 자연풍경으로 바뀌며 바람과 새 소리를 들려준다.

박지혜 작가의 영상 작업의 배경인 경기도의 구미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는 시험가동을 했다가 공적인 혐오 시설로 평가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용도 폐기된 장소이다. 온갖 오물이 모여들어 누군가의 접근이 꺼려질 정도의 악취를 유발하였던 이 곳이 박지혜 작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주는 압도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을 터이다. 대규모의 시설로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내버려둔 채로 없애버리지도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멈춰져 분명 물리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그 존재가 잊혀지거나 더 이상의 인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취급하지 않게 된, 애매한 인식에 사로잡힌 묘한 분위기가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장치들을 사용한 영상으로 재현되었다.

이 작업 속에서 박지혜 작가가 시선을 두는 공간은 누군가의 기억과 누군가의 신체적 개입을 수반한다. 그것은 화면 속에서 멈추지 않고 관람객의 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시 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적극적인 동선으로 확장되었다. 화면은 끊임없이 관람객의 개입을 유도하는 감감들을 보여준다. 이 공간 속에서 작가와 관객들, 그리고 패널로 초대된 김성우 큐레이터 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화면을 향하여 몰입해갔다. 무겁고 두꺼운 느낌의 공간이다. 화면 속 두 인물의 왈츠 장면이 단순한 춤의 리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신체의 발란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팽팽하고 극적인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듯이 화면을 주시하는 관객으로서의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미지들이 꾸준히 드러난다. 이 공간은 이처럼 전시와 이를 주시한 이들의 집요한 대화를 통해 재구성되었고 그 새로운 맥락을 재구축해가고 있었다. 지금은 나무도 없는 그 곳에 누군가가 개입하게 하는 박지혜 작가의 이러한 행위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었다.